

12 News

협회소식



육계 계열화사업 연구용역 요청

계열화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해

본회는 지난 11월 19일 농림수산물부에 '육계 계열화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육계 계열화사업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대두됨에 따라 산업으로서의 사회 경제적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의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실시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계 계열화사업은 1991년 이후 정부의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실시하게 되었고, 오늘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큰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객관적인 평가가 없었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에서는 가금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육계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육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요청한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육계 계열화사업의 추진배경과 그동안의 성과, 축산정책의 추진방향, 육계 계열화사업의 당면과제 및 문제점, 육계 계열화사업 및 육계산업의 발전방향 등이다.

이번 연구용역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육계 계열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발전방향 등이 도출되어 우리나라 육계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육계의무자조금 관련 설문조사 실시

자조금 사업 참여의사 여부 조사

본회는 지난 11월 13일부터 육계의무자조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회원사 계약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내용으로는 육계의무자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조금을 사육농가가 분담토록 하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육계의무자조금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육계의무자조금 거출금액은 수당 육계 5원, 삼계닭 2.5원, 토종닭 7.5원, 종계 50원이며, 육계 기준 3만수 규모로 연간 5회 사육하는 경우 1회에 15만원씩 총 75만원의 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호에 기재할 예정이다.

2009년도 다이어리 제작·배부

회원사와 관련 업계에 배부



본회는 회원사 및 육계 관련 기관·단체·업체의 주소, 연락처 등의 유용한 정보를 수록한 2009년도 다이어리를 제작해 회원사 및 계약사육농가,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했다.

이는 육계관련 종사자들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빠른 업무처리 등을 위한

것으로 본회 회원사를 비롯 정부기관, 축산단체, 소비자단체, 축산관련 교육기관, 육용 종계·부화장, 관련 업체 등의 주소가 수록되어 있다.



제7차 편집위원회 개최

‘월간 닭고기’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11월 6일 본회 회의실에서 2008년도 제7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월간 닭고기’ 전월호 평가와 아울러 11, 12월호 특집 및 2009년도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편집위원들은 지난 1년간 ‘월간 닭고기’의

편집내용 전반에 대해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올해 계육산업의 이슈와 2009년도 표지방향 및 신규 코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원사의 소식을 보내주세요”



『월간 닭고기』에서는 ‘회원사 소식’ ‘업계 소식’ ‘회원사 탐방’ ‘회원사 제품소개’ 등의 코너를 통해 본회 회원사의 소식이나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사 홍보를 원하시는 회원사(준회원사, 농가회원 포함)께서는 단신이나 회사소개 내용을 매달 20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육계 및 계육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서도 홍보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내용을 작성하시어 매달 20일까지 보내주시면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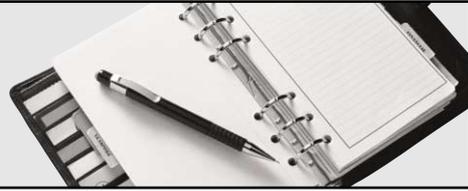
★ 소식 보내실 곳

- 취재문의 : (031)707-5722~4
- 팩 스 : (031)707-5725
- E-mail : hj@chicken.or.kr

- 웹하드(www.webhard.co.kr)
- ID : chicken PW : 1111
- ‘닭고기원고’ 폴더

12 News

회원사소식



(주)하림

2009년도 사업계획안 마련



(주)하림(회장 김홍국)은 통닭, 염장, 부분육 등 육계부분과 삼계부분, 토종계 부분, 가공식품의 삼계탕, 바비큐, 슬림 닭가슴살 등 2009년도 제품판매 계획을 세워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웰빙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내년도에는 친환경 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해 웰빙 시대에 맞는 다양한 닭고기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1본부를 비롯한 2·3본부 주요 임직원 11명이 총주에서 2009년도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현재 내년도 최종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내용을 토대로 목표실적에 따른 달성률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일일이 비교해가며 내년도 사업계획을 마련, 식품산업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가족들의 건강을 먼저 챙기는 가정주부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웰빙 시대에 맞는 '친환경(무항생제) 프리미엄 닭고기'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 고객들의 입맛을 겨냥해 나갈 계획이다.

또 농가에서의 자체 항생제 주입에 따른 사전 차단 방안 강구, 잔류 물질 검사 및 사육환경 모니터링, 친환경 제품 품질관리 장비·시설구축 등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제품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더욱이 주 5일 근무제 정착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인한 맞벌이 부부, 고도비만인 등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겨냥한 다이어트 식품과 깨끗하고 편리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도 많은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 S/M용 부분육, 즉석조리 제품 확대, 중소마트 미 공급 유통점 확대, 원가 절감 포장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글로벌 리더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업무효율화를 위해 프로세스 개선

(주)하림은 지난 10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BSC 4대 관점 중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프로세스 개선은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BPR을 하는 주된 목적은 업무의 신속, 고효율을 추구하는데 있고, 주요 개선 포인트는 일을 하는 절차 중 불필요한 시간, 즉 대기·이동·결재시간 등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활동을 진행하는데 프로세스를 운영리드타임과 지원리드타임으로 구분하여 전개해 나가고 있다.



운영리드타임의 범위는 고객의 주문으로부터 제품이 생산되어 고객에게 도착되는 시점을 말하며, 지원리드타임은 그 외의 활동범위를 나타낸다.

운영리드타임의 개선은 TPS 개선기법 중 시간 관측, 표준작업에 의한 개선 등을 사용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주로 가공공장에서 활용하며, 지원리드타임 개선은 Top-down map과 기능전개/IPO map이 사용되며 영업부서와 기타 지원부서가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때 빠지면 안 되는 조사내용은 고객요구사항이다.

(주)Ksnuc(코리아스탠다드앤컨설팅유나이티드)의 조청래 지도위원은 부서내 업무는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오고 있으나 부서간 교차되는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점을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필요시 기존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재설계하여 업무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마니커

흑룡강성 영안시 부시장단 방문

지난 11월 17일 (주)마니커(회장 한형석)에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부시장단이 방문했다.

이날 영안시 농업담당 부시장과 관내 단체장 등 9명은 (주)마니커를 방문, 회사소개와 육계 계열화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장 내부를 견학했다.

이들은 중국 흑룡강성에 대규모 육계산업단지를 건설한다는 목적하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한국, 특히 마니커를 선정해 방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방문단은 마니커의 사육 시스템과 선진 기술에 특히 큰 관심을 갖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주)체리부로

사육농가에 생계의 자상, 각질 및 흉부 수종 방지교육 실시
(주)체리부로(회장 김인식)는 동절기를 맞아 생계의 자상, 각질 및 흉부 수종을 방지하기 위한 농가 교육을 10월, 11월 두 달에 걸쳐 실시했다.

식품의 안정성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농가와 회사의 상생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주)체리부로 사육본부에서 협력농가 지역을 직접 방문해 강의



및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사육농가와 회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대하게 되었으며, 소비자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마케팅실 · 생계구매팀 사무실 이전

(주)체리부로는 지난 11월 마케팅실 및 생계 구매팀을 생산본부 사무실로 이전했다.

사무실 이전을 통해 업무 연관 부서가 한 곳에 모여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협의로 업무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각종 인적, 물적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매산

매산 블루윙스, 교촌치킨과 첫 친선 경기

지난 10월 3일 창단한 (주)매산(대표이사 김종석)의 사내 야구동호회인 블루윙스는 지난 11월 22일 교촌치킨 사회인 야구단과 인천대학교 야구장에서 첫 공식 경기를 가졌다.



교촌치킨 사회인 야구단은 2007년에 창단해 올해 경기도 화성시 사회인 야구단 3부 리그에서 활동 중에 있는 팀으로 현재까지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준있는 팀이다.

이날 경기는 19 : 10으로 교촌치킨이 한수 위의 기량을 보이며 승리했다. 그러나 매산 블루윙스도 첫 공식 경기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라고 할 수 있다.

매산 블루윙스는 사회인 야구 3부 리그인 교촌치킨을 상대로 10점을 획득했으며, 투수진은 탈삼진 5개를 잡았을 정도로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직 수비적인 면에서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준 경기였다.

교촌치킨 권진욱 감독은 “같은 업종에 있는 동질감 있는 야구동호회가 생겨서 기쁘고, 매산 블루윙스 창단을 축하한다”며, “창단 한 달 만에 경기를 하게 되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 다음 달에는 교촌치킨에서 초대해 매달 친선 경기를 갖자”고 말했다.

앞으로 매산 블루윙스는 교촌치킨과 매달 친선 경기를 통해 친목을 도모할 것이며, 2009년에는 3부 사회인 야구 리그인 BC리그에 가입해 명실상부한 사회인 야구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